한국화가 김호석의 '황희' 인도로 가다

김호석 화백,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초대전 '빛 속에 숨다' 6월 25일까지
한국 작가로는 최초, 전 세계 2번째
38년간 작품 '황희' 등 83점 전시
미물 소재 신작 30점 최초 공개도

성철 · 법정 스님과 노무현 前 대통령 초상을 수묵담채로 그려 유명한 한국화가 김호석 화백(60)이 한국인 작가로는 처음으로 인도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 전시관에서 해외 생존 작가가 개인전을 여는 건 독일 작가 레베카 호른 이후 김 화백이 두 번째다.

김호석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지난 38년간 작품생활을 오롯이 드러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화백에 따르면 데뷔한 1979년부터 현재까지 그린 작품을 한 자리에서 전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없던 일이다.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83점을 선보이며, 이중 최근 4년간 벌, 애벌레, 물고기 등 미물을 소재로 그린 신작 30점은 국내외에서 최초 공개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신작에는 미꾸라지와 그 지나간 흔적을 그린 '법의 한가운데', 여왕벌 한 마리와 뒤집혀있는 수벌들을 그린 '한밤의 소' 등이 포함된다. 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인간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의 본질과 생명의 지극함을 고스란히 담아내 인도 현지 관계자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 화백은 작업노트를 통해 "미물은 인간 기억 너머에 이미 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기억이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싶었다"면서 "미물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 가장 미천하다 생각한 것들은 미천한 것이 아니다. 미물들 모두가 여백이다"고 표현했다.

또한 김 화백은 "최근 우리 사회는 보이는데 안 보이고, 뻔히 드러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고도의 서술을 보았다"며 "바퀴벌레, 벌, 개미 등 미물을 그리면서 이성적인 것들과 이성을 넘어서려는 표현, 설명을 줄이고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희망이었지만 어려운 멍에이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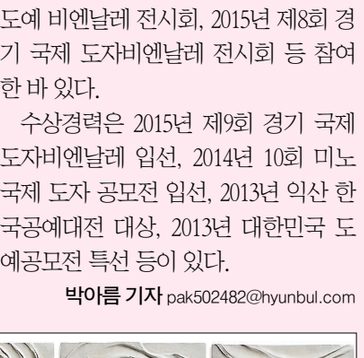
이밖에 김 화백의 대표작 중 4개의 눈으로 잘 알려진 '황희'(1986)와 손자를 등에 업고 놀아주는 할아버지 모습을 표현한 '풀들은 늙지 않는다'(2002) 등도 전시된다.

아드와이타 가다나야크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그의 작품에서는 내적 에너지와 영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인도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한국 철학뿐 아니라 한국과 인도 문화의 공통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메그나 비야스 아로라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찾아 음미하게 하는 한편, 숨겨진 진실에 대한 탐구와 깨달음을 자극한다"며 "개개의 작품들은 꿈의 기억과 연결돼 세상에 반향을 이끄는 일상의 흔적을 찾아간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시 '빛 속에 숨다'는 6월 25일까지 이어진다.

김호석 화백은 동양화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전통 초상화의 권위자로서 '배채법'을 화면에 실현하는 극히 드문 수묵화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큰스님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정 작업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 갤러리, 아라리오 갤러리 등에 김 화백의 작품이 소장돼 있다. 본지에 '김호석의 화폭 속의 선지식'을 연재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기억은 기억한다, 종이에 수묵 채색, 142×142㎝, 2017.



4개의 눈으로 잘 알려진 김호석 화백의 대표작 '황희'〈사진〉를 비롯해 38년간 작품세계를 총망라한 작품 83점이 인도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6월 25일까지 전시된다.

부처님의 소리 한곳에 모아 깨달음의 길로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깨달음을 찾는 소리~'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2017 상반기 특별전시 '깨달음을 찾는 소리, 소리로 찾은 진리'를 7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문화에 담긴 유무형의 소리를 모으고 그 소리에 담긴 참뜻, 깨달음의 진리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울림響, 소리로 일깨우다'는 처마 끝 풍경소리, 새벽과 저녁의 범종소리, 법고 · 목어 · 운판 등 불전사물 소리 등을 모은 공간이며 2부 '말씀言, 글소리로 깨우치다'는 진언 등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밖에 3부 '나타남應,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다', 4부 '수행悟, 깨달음을 찾아가다' 등이 펼쳐진다.

전시품 중에서는 '소리'와 연관 있는 다수의 국보도 함께 소개돼 눈길을 끈다.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 국보 제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7, 보물 제1303호 〈백지금니금강 및 보물발원〉, 보물 제1801호 및 제1802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 및 복장전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이 전시된다.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 **사진제공=국립대구박물관**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은 정면에 불보살이 배치되고 측면에 8인의 천인이 있는데 천인들이 피리, 생황, 비파 등 연주하며 서방정토를 소리로 장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7에는 위험에 처한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편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의 특별 강연 '일상에서의 깨달음, 퇴옹 성철 스님을 만나다'도 진행된다. 6월 10일 오후 2~4시 국립대구박물과 강당. (053)760-8542

박아름 기자

임지현 작가 개인전 '자신의 작용'

6월 13일까지 스페이스선+에서

임지현 작가의 개인전 '자신의 작용(What It Does)'이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스페이스선+에서 6월 13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물질, 현상 등을 임 작가의 개인적 사유를 통해 인식, 관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 개인이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 및 사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임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참여적 방식으로 재해석해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우리 일상에서 물질의 가치는 편의에 의해 쉽게 결정된다. 그러나 비가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안에 포함된 물질성, 운동성, 질량 등 다층적 범위에서 사물을 포착하고 그것의 환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지현 작가는 홍익대에서 도예 유리를 전공하고 동대 일반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그룹전 2016년 세라믹창작센터 입주작가 보고전, 2016년 대만 도예 비엔날레 전시회, 2015년 제8회 경기 국제 도자비엔날레 전시회 등 참여한 바 있다.

수상경력은 2015년 제9회 경기 국제 도자비엔날레 입선, 2014년 10회 미노 국제 도자 공모전 입선, 2013년 익산 한국공예대전 대상, 2013년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특선 등이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연기길, 임지현, way of smoke, 45x71x8cm, 2017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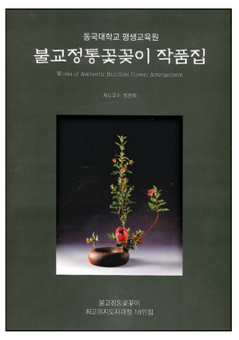
정진희 지도교수 및 18명 수강생 작품 실려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 최고위지도자과정(지도교수 정진희) 수강생 18명의 작품들을 한데 모은 작품집이 발간됐다. 지난 3년간 정진희 교수와 수강생들이 꽃잡지 '세이플로리'에 연재한 작품 130여점을 실은 책이다.

정 교수는 15년간 평생교육원에서 불교꽃꽂이를 가르쳤다. 그동안 정 교수는 타종교계 꽃꽂이에 비해 불교꽃꽂이는 그 방법과 의미 등을 배울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한 점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불교에서 꽃은 육법공양 중 하나로 매우 중요시 되어왔습니다. 사찰 법당은 환경이 복잡한 만큼 꽃의 배치도 매우 중요하며, 너무 비싸거나 향이 진한 꽃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꽃 공양에서 꽃을 어떻게 꽂을지, 또 얼마만큼 꽃을 사용할지, 어떤 선과 형태로 만들어야하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번 작품집 발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교꽃꽂이의 의미와 특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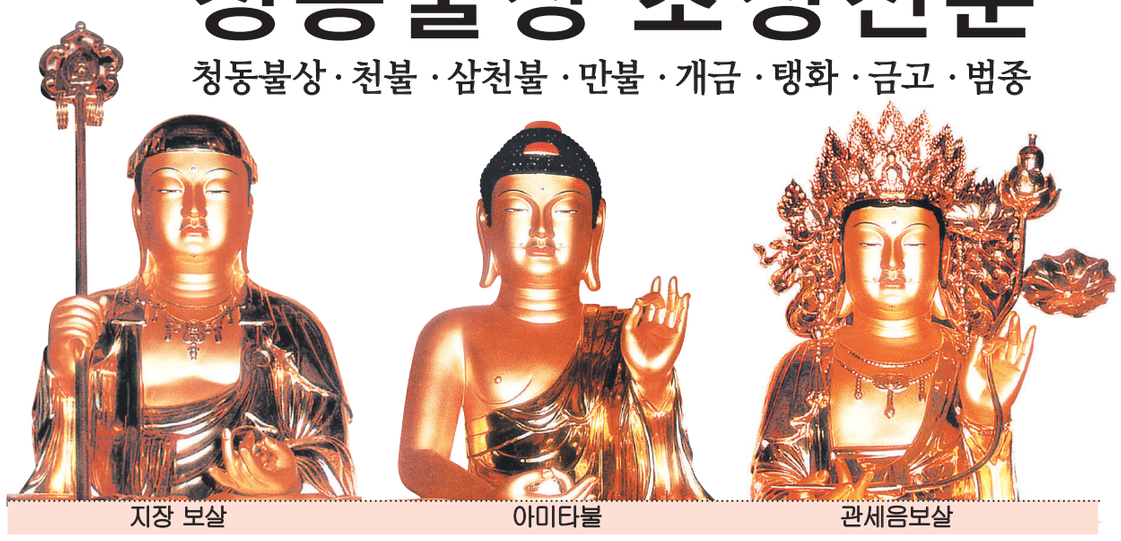
취지에 따라 작품집 첫 장에는 불교꽃꽂이를 임하는 마음가짐과 방법 등이 소개됐다. '불교 꽃꽂이는 장식의 의미보다 봉헌의 의미다' '생명이 없는 소재보단 생명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환경에 해가 되는 오아시스 사용을 자제한다'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정 교수는 "불교꽃꽂이와 일반꽃꽂이는 다른 점이 많다"면서 "법당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색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너무 서구적인 꽃은 뾰족집인 성당이나 교회엔 잘 어울리지만 한국적인 절집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즉 동양꽃꽂이 기법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진희 교수는 前 대한불교꽃꽂이연합회 이사장, 前 웰다잉운동본부장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및 명상리더십센터장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